



성공개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속으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성황리에 개최

2025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제20회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는 'Hyper-Connected Cities by ITS(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미주, 중동 등 세계 37개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가 간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기술 세션, 전시회, 시연, 시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밀도 있게 진행되며, ITS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었다.

본 기고에서는 총회 기간 동안 펼쳐졌던 주요 프로그램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ITS가 만들어가는 초연결도시의 가능성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나누고자 한다.



ITS Korea
수원ITS아태총회사무국
김 아 영 차장

공식 사교행사

2025 수원 ITS 아태총회에서는 ITS 기술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참가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 행사가 마련되었다. VIP디너와 개회식을 비롯해 고위급 회의, 환영 리셉션, 갈라 디너에 이르기까지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ITS 협력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VIP디너

개회 전날인 5월 27일, 수원 화성행궁 내 봉수당에서 VIP디너가 열렸다. 이재준 '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해외 장·차관급 인사들이 함께한 만찬은 국내외贵宾들을 환영하고 수원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허청희 ITS협회장을 비롯한 해외 장·차관들이 VIP디너에 참석하였다.



개회식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개회식은 1,000명 이상의 국내외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공식 개회 선언과 함께 3일간의 총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백원국 국토부제2차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축사를 통해 총회의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으며, 20회를 맞은 총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ITS 아태총회 2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①



②

Photo guide

- ① 송소희 축하 공연
- ② 개회식 전경
- ③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 ④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 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⑥ 수원ITS 아태총회 개회 선포



③



④



⑤



⑥

고위급 회의

개회식 당일 오후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아태지역 12개국 장·차관이 참석한 고위급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ITS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내 지속가능한 교통협력을 함께 모색하였다. 역대 아태총회 중 가장 많은 국가의 고위 인사가 모인 이번 회의를 통해, 초연결 시대 교통 혁신을 위한 공동 의지를 담은 'Key Messages'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회원국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 하였다.



개회식 첫 날, 아태지역 12개국 장·차관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다

사교행사(웰컴리셉션, 갈라디너)

총회 첫날 저녁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웰컴 리셉션이 개최되어 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되었다.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내에서 열린 리셉션에서는 아태지역 회원국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둘째 날인 5월 29일 저녁에는 공식 만찬 행사인 갈라 디너가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총회를 후원한 실버 후원사 3개사와 브론즈 후원사 8개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 ITS Korea 허청회 회장의 웰컴리셉션 환영사, (우) 국·내외贵宾이 참석한 갈라디너



학술세션

총회 기간 동안 진행된 학술프로그램은 전체회의, 집행회의, 논문세션 등으로 구성되어 ITS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연구 동향을 폭넓게 다루었다. 총 50개 세션에서 241건의 발표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교통의 비전과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학술세션에서는 미래 교통 비전 및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시회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약 70개 기관·기업이 177개 부스를 운영하며 ITS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장에는 ITS 분야의 최신 교통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선보였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총회 기간 중 운영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는 총 23건의 1:1 비즈니스 매칭과 8건의 기업 브리핑 세션이 진행되었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실질적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참가 기업들은 각자의 기술과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며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전시회 참가자들이 ITS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비즈니스 매칭 세션에 참여하는 모습

기술시찰

총회 기간 중 6개의 기술시찰 코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과 도시교통 혁신 사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이번 기술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첨단 ITS기술과 모빌리티 인프라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 기술시찰(6): 고속도로 교통센터,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험도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SK텔레콤 티움홍보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 DMZ



아태총회 참가자들이 시험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기술시연

총회 기간 동안 행사장 내·외부에서 총 9건의 기술시연이 진행되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스마트 신호제어,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되어 관람객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 기술시연(9): (외부) 수원시 ITS 운영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자율주행 체험, 고속도로 C-ITS 서비스,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구조물 점검 시연/ (내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시연, 에스유엠 “SMOBI-ToD” 원격주행 기술 체험, 교통사고 안전띠 체험, 미래형 UAM 전시, 첨단 스마트 횡단보도 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

총회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야외 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렸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운영되면서 현장 곳곳에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5월 28일 밤, 광고호수공원 상공에서는 1,200대의 드론이 수원화성과 총회 로고 등을 형상화한 대규모 드론 아트쇼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태총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드론 아트쇼는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하였고, 총회의 대미를 장식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좌)드론아트쇼와 (우)버스킹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학생프로그램-ITS아이디어톤

미래 교통 분야의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한 ITS 아이디어톤 대회도 열렸다. 국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팀을 이루어 혁신적인 교통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 기간 동안 예선을 거쳐 선정된 팀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최종 우수 아이디어들은 폐회식에서 시상식을 통해 발표되었고,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미래 ITS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ITS-로봇-AI 협회 간 업무협약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는 ITS-로봇-AI 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술 융합, 공동 연구 과제, 정책 대응 등 7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종 기술 간의 유기적 연계가 ITS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이 날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지능형교통 지역발전 협의체 출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이번 ITS 아태총회에서는 ‘지능형교통 지역발전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지자체 간 ITS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전국 63개 지자체와 학계가 참여한 이번 협의체는 정책 공조와 기술 교류를 통해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ITS 확산을 위한 실행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 교통 지역발전 협의체가 성황리에 출범하였다.



베트남-ITSK 간 업무협력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기간 중 베트남 교통부와 스마트 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양자 미팅을 개최하였다. 베트남은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 과제로 ITS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은 법·제도 체계, 교통정보센터 운영, 고속도로 및 지자체 ITS 구축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인재 양성, 정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한-베트남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협회는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스마트 교통 분야 전략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ITS 아태총회를 마무리하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ITS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 기술과 정책, 산업과 시민이 함께한 이번 총회는 ITS가 만들어갈 '초연결도시'의 비전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

고위급 회의와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정책 연계의 기반이 강화되었고, 전시회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또한 ITS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술과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는 아태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며,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베트남 교통부 차관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함께 양국 간 업무협력을 진행하였다.

